

진귀한 악기연주곡과 함께 백제를 재현하다

전북도립국악원 국악관현악단, '위대한 전통 · 한국의 맥, 천년지악' 공연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새빛을 일구오니/새천년의 기운으로, 민초들의 역동으로/바닷길을 열어 제껴/이 세상의 중심으로/ 날아보세 날아보세 푸른하늘 저 끝까지 -악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공연곡 중에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박승기)은 제43회 정기연주회 '위대한 전통 · 한국의 맥, 천년지악'을 오는 16일~17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연다.

이번 음악회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해 열리는 것으로, 천년전북의 장엄한 역사와 기상이 국악관현악의 선율에 실린다.

프로그램은 전북의 과거·현재·미래를 상징하는 6개의 위주 초연곡으로 구성된다.

관현악단은 태초를 상징하는 <새날, 밝음이 되다-동트는 대지>를 시작으로 <백제, 세상을 깨우다-백제의 탄생>, <Dream of Baekje-백제의 꿈>, <국악관현악을 위한-견훤, 웅비하라! 왕도의 땅이여>, <악무호남, 시무국가-국난에 맞서

항쟁한 위대한 역사,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천년지악-천년의 울림 · 천년의 소리, 천년의 역사를 이어 천년의 음악을 만들어간다>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선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고악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백제 땅에서 배출한 걸출한 영웅 견훤의 파란만장한 삶을 음악적으로 연출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견훤'에서는 사부악기 '공후'를 비롯해 관악기 '배소', <고려사>에 전해오는 '생황'과 '종적' 등 진귀한 악기연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조용한 관현악단장이 작품의 기획·구성 및 제작의 전반을 총감독하였고, 감성진 객원지휘자(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와 류경호 연출자(전주대 교수)가 지휘와 연출을 맡았다.

박승기 국악원장은 "백제의 문화유적은 뛰어난 기술과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남겼다. 백제 문화유적의 시기를 관현악단에서 재현하는 가슴 벅찬 꿈이 이루어지길



전북도립국악원은 제 43회 연주회를 오는 16~17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연다

희망한다"며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밝혔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예매는 홈페이지 (<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

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문의 290-5531. /정해은 기자



완주군 삼례여중 축구부 감동 실화

담은 특별한 영화 '슈팅걸스' 시사회

완주군 삼례여중 축구부 감동 실화를 담은 영화 '슈팅걸스' 시사회가 완주군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완주군 문예회관에서 오는 12월 개봉을 앞둔 영화 '슈팅걸스'가 삼례여중 축구부, 지역주민, 일반인 등 관객 4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시사회를 개최했다.

영화 '슈팅걸스'는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삼례여중 축구부가 13명의 인원으로 2009년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의 이야기 등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꾼 학생들의 가슴시린 감동 실화를 담았다.

특히 불우한 가정환경에 좌절하고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한 미래가 불분명한 학생들이 축구를 통해 꿈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동안 단절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가며 담담히 나아가는 모습을 담아 보는 이에게 커다란 감동을 선사했다.

'슈팅걸스'는 (주)아이언스튜디오 배효민 감독의 연출아래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극중 축구부 감독 '수철' 역은 연기파 배우 정웅인이 맡아 기대를 모았으며, 순도 100%의 감동실화로 2016년 12월 겨울 우리의 가슴을 달궈 줄 것으로 기대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슈팅걸스 같은 영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작되어 꿈을 좇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길 바라고 완주군이 영화 촬영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남원향교 문화체험학교 문화재청 우수사업 선정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청소년 향교 문화체험학교' 사업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맞추어 문화재청에서 공모하여 12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전문가를 비롯한 일반인 모니터링 결과 남원향교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다가오는 12월 7일 문화재청장상과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처음으로 시행한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우리고장 문화재바로알기 등 역사문화인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남원향교가 주관이 되어 지역학교인 용성중학교와 연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전교생 600명이 각 반별로 일정을 나누어 향교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반과 군자의 덕목을 일깨워주는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특히 '우리지역 문화재바로알기' 골든벨 프로그램(도전문화골든벨)은 방송국 못지않은 사전준비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 내년에도 2차로 다시 한번 진행 될 예정이다.

2017년도 사업에는 '역사문화버스타GO', '삼력(三力)을 키워주는 전통수련', '도전문화골든벨', '명륜당풍류', '1박2일 선비문화체험'의 5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뻐 마디마디에 시를 새겨 새로운 세계로"

정동철 시인, '나타났다' 출간

정동철 시인이 첫 시집 '나타났다'를 펴냈다.

이 책에서 시인은 날카롭고 직확한 시어들로 우주적 세계를 촘촘하게 직조해 낸다. 그는 성긴 마디 없이 충실하게 짠 내는 언어의 책으로, 시편들마다 고유하고 개성적인 목소리를 부여해 놓았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58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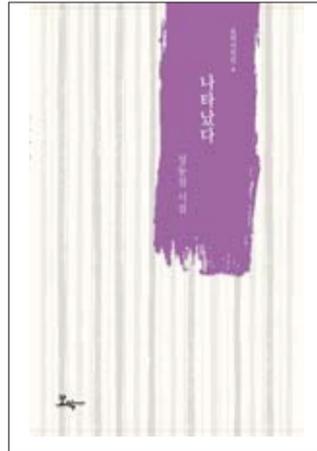
1부는 주로 "뻐 뻐-익 울어대던"(뜸, 뜸, 뜸부기) 유년기의 삽화들을 폭설의 이미지에 겹쳐놓았다.

폭설 속에 갇혀 있는 유년기가 현재 시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1부의 시편들은 시인의 지적 저항점을 짐작케 한다. 2부의 시들은 가난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전주철물점과 행복부동산 사이>에서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가 짙게 깔린다.

3부에는 새로운 세계를 배태하고 있는 씨앗들을 발견해 내는 시편들이 자리한다. "나는 지금 내 몸의 뻐, 마디란 마디마디, 한 편씩 시를 새기고 있는 중이다. <갑기 몸살>에서 보듯 시인은 시라는 새로운 세계를 세상에 새겨나간다. 4부의 시편들은 순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박한 믿음을 담고 있다.

정동철 시인은 1967년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시인은 2006년 광



정동철 시인이 첫 시집 '나타났다'를 펴냈다.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에는 58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폭설속에 갇혀 있는 유년기의 무의식을 담은 1부부터 순정하게 살고자 하는 5부의 시편들이 정갈하게 시집에 담겨있다.

주일보 신춘문예에 <전주철물점과 행복부동산 사이>,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시 <허공 위에 뜬 집>과 시 <아버지 소처럼 말씀하시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2014년에는 '작가의 눈' 작품상을 수상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영화제작소 'FLOWERS & LIGHT CUBE' 16일부터 전시회

전주영화제작소는 <FLOWERS & LIGHT CUBE>를 오는 16일~12월 4일 제작소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물은 전주영화제작소가 공모한 '2016 하반기 무료 대관 전시' 당선작들로 채워진다. 프리스타일의 그림 전시(FLOWERS & LIGHT CUBE)에는 박경민, 양재원, 임성찬, 정수경, 채윤철, 허은정이 작가가 참여한다.

작품들은 전통창호에 적용된 아름다운 꽃살 문양을 현대적 패턴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다채로운 형태의 장식과 다양한 조명효과로 빛어낸 빛과 그림자의 향연을 표현하고 있다. 또 우리창에 핀 서리처럼 아름다운 꽃살 패턴으로 그려낸 영상과 실제 꽃살 문양의 만남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된 작품들도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 <http://theque.jiff.or.kr>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1월 14일>

▷쥐띠
46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으로 인사가 편안히 흘러갈 것이다.
60년생: 큰 욕심은 불리하니 매사 주의하고 작게 움직여라.
72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
84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때다. 마음을 안정시켜라.

▷소띠
49년생: 처음에는 구설수와 시비가 수따르다.
61년생: 자기의 주장을 관철 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고역.
73년생: 손위사람과 함께라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85년생: 이성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하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동기간과의 다툼에 주의하라.
62년생: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이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
74년생: 상대방과 불화가 예상되니 언쟁은 피하라.
86년생: 외부적으로 움직이면 이익이 있으나 내부적인 일은 마음을 비워라.

▷토끼띠
51년생: 적대적이었던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
63년생: 시비가 따르니 타인과의 관계에 관대한 마음을 가져라.
75년생: 여자는 남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운.
87년생: 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는 운이니 화합을 도모하라.

▷용띠
52년생: 나를 위한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상황이 되게 만들라.
64년생: 처음에는 불화하니 나중에는 화합한다.
76년생: 투구를 나타낼 수 있는 운이다.
88년생: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니 좋은 결과.

▷뱀띠
53년생: 상대방이 나에게 걸과 속이 다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65년생: 때를 기다리며 내실을 다져 나아가야 하는 시기.
7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지함과 성실함이 더해진다.
89년생: 가볍게 던진 말로 인해 구설이 발생하니 언행에 주의하라.

▷말띠
54년생: 출타할 일이 있으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운이다.
66년생: 의도하지 않게 타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운이니 주의.
78년생: 사고수와 질병수가 따르니 운전은 삼가는 것이 상책이다.
90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지출을 삼가고 미루라.

▷양띠
55년생: 정신적으로 맑지 않은 운이니 세심한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
67년생: 이성으로 인해 오히려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79년생: 약간의 구설이 따르는 운이나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린다.
91년생: 금전운이 약하고 출타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 발생.

▷원숭이띠
56년생: 문서로 인하여 구설이 발생할 수 있는 운.
68년생: 외로운 마음이 드는 시기다. 마음을 가다듬어라.
80년생: 먼저 베풀면 베풀 것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92년생: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닭띠
57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운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밖으로 크게 추진하지 말라.
81년생: 기혼자에게는 부부불화, 미혼자에게는 이성과 만남이나 인연이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추위로 인한 질병, 특히 기관지에 유의해야 할 운.

▷개띠
46년생: 일찍 움직이면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8년생: 틀어온 만큼 나가는 운이니 욕심은 금물이라.
70년생: 큰 성과를 욕심내는 사람은 불리하니 주의하라.
82년생: 운전은 가끔씩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다.
59년생: 지나간 일에 대한 구설수가 발생하는 운이다.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라.
83년생: 빛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